



# '99년 정보통신 산업 실태조사

협회에서는 지난 4월 3일부터 6월 16일 까지 약 2개월여동안 지난 '99년을 기준으로 정보통신산업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우리나라 정보통신산업을 사업별, 지역별로 사업규모와 시장현황을 조사하여 제시함으로써 정부의 정책수립이나 기업의 경영전략의 기초자료로 널리 활용할 목적으로 실시된 이번 정보통신산업 실태조사는 기간통신서비스, 별정통신서비스, 부가통신서비스, 방송서비스, SW 및 컴퓨터 관련 서비스, 정보통신기기 등으로 나누어 조사했다.

조사대상으로는 정보통신서비스 관련 1000여개업체로서 업체실사 및 전화, 우편을 병행하여 조사했다. 이 자료는 정보통신산업통계연보를 통해 올 12월 말경에 나올 예정이다.

## 홈 게이트웨이의 표준화 추진을 위한 워크샵 개최

협회는 지난달 11일부터 12일까지 1박 2일동안 한국통신 도고수련원에서 「홈 게이트웨이의 표준화 추진을 위한 워크샵」을 개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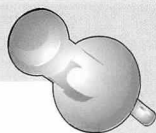
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협회내 인터넷정보가전산업협의회가 주관한 이 워크샵은 정부 및 업계 관계자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 워크샵은 인터넷 정보가전 관련 국·내외 홈 게이트웨이의 기술현황 및 표준화 동향을 검토하고, 홈 게이트웨이에 대한 표준화 요구사항 등을 종합 분석하여 국내 표준화 전략 수립 및 기술개발 방향 등을 설정하고자 개최됐다.

## 정보통신인력센터, ASP 해외 산업시찰

한국정보통신인력센터는 지난 6월 18일부터 24일까지 7일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호세 실리콘밸리 지역으로 「ASP 해외 산업시찰」을 실시했다.

해외의 최신 업계동향 및 기술동향을 파악함으로써 국내 ASP산업 활성화를위한 새로운 아이디어 발굴 및 벤치마킹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된 이번시찰에는 삼성전자, 한국통신하이텔, 현대정보기술, LG-EDS시스템 등 17개사 22명이 참가했으며 이들 업체관계자들은 실리콘밸리 지역내 ASP 관련 회사 및 IDC 방문·참관, CEO 간담회, 전문가 초청 세미나 등에 참여했다.

이번 산업시찰에 참여한 정보통신인력센터는 "미국의 경우 이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



보다는 수익성 확보가 ASP사업자들의 주된 관심사"라고 말하는 한편 "국내의 경우 아직 비즈니스 모델도 정립이 안된 상태이므로 미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고 시장목표를 명확히 설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미국의 IDC는 사업자들이 자체적으로 엄격한 기준을 설정하여 구축·운영하고 해외 진출을 모색하고 있는 단계"라며, "국내의 경우도 미국의 IDC 기준 등을 참고하여 국내 실정에 맞는 기준을 적용하여 IDC를 구축하여야 외국 사업자와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 제7회 멀티미디어기술대상 시상식 개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한국경제신문사가 공동주최하고 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멀티미디어 분야 기술상인 제7회 멀티미디어기술대상이 지난 26일 한국경제신문사 다산홀에서 열렸다.

이 날 대통령상에는 삼성전자의 "디지털 홈네트워킹 강유전성 액정(fLCD) 고선명(HD) TV"가, 국무총리상 수상작으로는 싸이버뱅크의 "멀티팝"이 뽑혔다.

정보통신부장관상은 하드웨어부문에서 디지털비디오디스크(DVD) 플레이어보다 선명한 LG전자의 "고선명(HD) 비디오디스크플레이어(VDP)"가 받았다.

한국경제신문사장상은 삼성전자의 24인치 "WUXGA"급 초박막액정표시장치(TFT-LCD) 모니터,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장상은 코디넷의 "스타체이스어썰트"에 각각 돌아갔다.

시상식은 이한동 국무총리, 안병영 정보통신부 장관, 정장호 정보통신진흥협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한편 이날 시상식에서 이 총리는 "올해 국내 총생산(GDP)에서 정보통신산

업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10.7%에 이를 만큼 우리 산업에서 정보통신의 중요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또 "앞으로 정보화의 핵심인 콘텐츠와 소프트웨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 지원하는 한편 정보통신기기와 부품산업 육성에도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 제5회 인터넷정보검색사 1급 및 제4회 인터넷전문가 1차 시험실시

협회는 제5회 인터넷정보검색사 1급 및 제4회 인터넷전문가 1차 시험을 지난 7월 30일 실시했다. 동호공고등 전국 11개 지역 14개 학교에서 실시한 이번 시험은 접수기간이 지난 7월 4일부터 7일까지 사흘간이었는데, 정보검색사 1급 8,349명의 접수자와 인터넷전문가 접수자 244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합격자발표는 지난 8월 9일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했다.

## 인터넷정보가전 미들웨어 및 응용 표준화 워크샵 결과

협회는 지난 7월 28일 정보통신부 최세하 서기관 및 분과위원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터넷정보가전 미들웨어 및 응용 표준화 워크샵」을 과충회관에서 개최했다.

이 워크샵을 통해 인터넷정보가전표준포럼 미들웨어 및 응용분과위원회 위원장으로 LG전자의 이춘상무가 선출됐으며 미들웨어 및 응용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 정보통신 벤처창업 경진대회 1차 선발자 창업교육 개최

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협회와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이 공동 주관하는 「정보통신 벤처창업 경진대회 1차 선발자 창업교육」이 7월 20일부터 22일까지 사흘간 천안에 있는 정보통신공무원교육원에서 개최됐다.

총 제안자 427명 중 지난 7월 5일 1차 선발자 117명을 확정하였으며, 이들에 대한 사업계획서 작성 및 창업실무 중심의 체계적인 교육을 통하여 벤처창업계획능력을 배양하고, 창업성공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마련된 이번 교육은 1차 선발자간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초석도 다질 수 있었던 좋은 기회가 됐다는 평이다.

